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이 곳 송실대학에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참석한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표현도 잃어버린 심령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금 깨달아,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번 봄학기 채플시간을 통해 우리 송실의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어서 훈계 받음으로, 현재 배우고 있는 세상학문의 영역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정직한 수고와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송실의 젊은 청년들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꿈을 세밀하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젊음의 시절, 우리 송실의 청년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신앙을 주시어서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번 고난 주간, 특별히 힘든 삶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나음이 있도록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2016년 3월 23일 채플시간 기도문, 기계/산업정보/건축)